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8일

코스피지수	1941.09	▲	+16.49
코스닥지수	602.90	▲	+14.58
환율 (원·달러)	1213.90	▲	+2.7



패션 브랜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가 자동차 시트 제조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가죽으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의상.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차-美 친환경 브랜드 폐소재 '업사이클링' 협업

현대자동차가 미국서 활동하는 친환경 패션디자이너와 손잡고 자동차 폐소재를 업사이클링하는 협업에 나선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 가치를 부여해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그룹사인 현대트랜시스는 5월부터 미국 뉴욕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와 함께 폐기되는 시트 가죽을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의상을 제작하고 있다.

의상 제작에는 자동차 시트 연구와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자투리 가죽을 현대트랜시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했다. 기존에는 크기가 작거나 오염이 돼 폐기했던 소재다. 제로+마리아 코르네호는 이 소재로 총 15벌의 의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업사이클링 의상을 '2020 S/S 뉴욕패션위크'의 첫 날인 9월 6일 맨해튼 '퍼블릭 키친'에서 '리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캡슐(소규모) 컬렉션을 통해 공개한다.

조원홍 현대자동차 고객경험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지향점인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오직 시그니엘서울에서만 PB 선물세트 30여종 선택

시그니엘서울은 12월 31일까지 '시그니엘서울 선물세트(사진)' 30여 종을 판매한다. 선물세트에는 시그니엘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PB 상품 10여 종이 포함됐다.

우선 시그니처 PB 상품인 '로열티'와 커피 원두 2종(시그니엘 123, 시그니엘 79)이 있다. 와인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12종을 판매한다. 호텔 시그니처 향기인 '워크 인 더 우드'의 향기를 담은 디퓨저와 320여 년의 전통 프랑스 명품 차 단 프레스 티 세트 등의 상품도 있다.

이밖에 호텔 고품격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에프터는 티 세트로 구매 시그니엘 2인 이용권을 비롯해 레스토랑 스테이 저녁 1인 식사권, 예비양 스과 선물 기프트 카드 등도 있다. 선물세트는 시그니엘서울 더라운지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김재복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비즈 프리즘 | 화려한 매장 밖으로 나온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 열린 광장에서 진행된 루이비통 '하드사이드 러기지' 팝업 스토어. 명품 팝업 스토어를 유치하기 위한 백화점업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젊어진 명품 소비층 잡아라”

고객과 소통·브랜드 홍보 장점 소공동 롯데百貨 '펜디' 팝업 오픈 판교 현대 '루이비통' 전진 배치

백화점 명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매장이다. 방문객을 주목하게 할 정도로 화려한 백화점 명품 매장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특징이었다. 그런데 요즘 명품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화려한 매장에서 나와 밖으로 향하고 있다.

대신 이들 브랜드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곳은 지하철역 연결층, 정문,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이다. 이곳에 명품 브랜드들이 백화점 팝업 스토어(임시매

장)로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팝업 스토어는 주로 신규 브랜드가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층이 젊어지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기존 매장을 벗어나 더 많은 고객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에 눈을 돌리고 있다. 팝업 스토어는 별다른 고정비 부담없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도 매력적이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은 17일 지하1층 광장에 '더웨이브' 상설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첫 입점 브랜드는 펜디로 10월 31일까지 통합 컬렉션을 선보인다. LED패널을 활용한 패션쇼 영상 등 고급스러운 감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름뜰판

도 15일 이스트 1층 정문 앞에 명품 전용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첫 입점 브랜드는 디올로 29일까지 가을·겨울 가방과 슈즈 신상품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1층 열린 광장에서 해외 명품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28일까지 루이비통의 여행가방을 판매하는 '하드사이드 러기지'를 진행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중앙 광장에 팝업스토어 전용 공간 '더 스테이지'를 마련했다.

전예원 롯데백화점 해외패션부문 치프 바이어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은 물론 보다 다채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카카오 음원서비스 반칙 공정위, 2억8000만 철회

지니뮤직·네이버 등도 과태료 부과

카카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할인을 부풀리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와 지니뮤직, 소리바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과징금 2억7400만 원과 과태료 1150만 원을 부과받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했다.

카카오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도 인상 전 가격으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뮤직에서 음원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결제 후 7일 내에 1곡이라도 내려받으면 전체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게 막았다.

지니뮤직은 특가 할인페이지 할인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했고, 소리바다는 할인 프로모션의 할인을 적용대상을 과장 광고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포함한 5개 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초기화면에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SKT-삼성 초고주파 5G 시속 213km 생중계 OK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최고 시속 213km로 달리는 레이싱카에서 차세대 5G 기술인 '28GHz 초고주파'를 활용한 데이터 전송 및 생중계 기술 검증에 성공(사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F1 서킷)에 5G 28GHz 초고주파 상용 기지국을 설치하고, 운전석 주변에 28GHz를 지원하는 '퀄컴S10 5G' 4대를 장착했다. 생중계 솔루션은 SK텔레콤 T라이브 캐스터를 활용했다.

영상은 스마트폰과 기지국, 중계 시스템을 거쳐 멀티뷰로 생중계됐다. 3GPP(이동통신 국제표준화단체) 표준 규격의 5G 28GHz 상용 기지국과 단말을 활용해 시속 200km 이상 초고속 주행 환경에서 서비스 테스트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극한 상황에서 기지국 간 데이터를 끊김 없이 넘겨주는 '핸드오버' 기술 검증에 집중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김영근 기자

이랜드리테일 슈펜 '청춘 응원 캠페인'

이랜드리테일의 슈즈 SPA(제조직매입) 브랜드 슈펜이 9월 16일까지 '청춘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20대 청춘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슈펜 공식 인스타그램에 응원하고 싶은 스토리를 가진 20대 청춘을 소개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추천을 통해 200명에게 슈펜 다드 스니커즈를 증정한다. 슈펜다드 스니커즈는 슈펜의 대표 상품인 베이직 스니커즈에 고객 의견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신상품이다.

정정욱 기자

※ 교육·퍼즐은 6면에 옮겨 실었습니다

물세권+숲세권+학세권…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핫하네

경부·호남 고속도로 등 접근성 편리 내년 오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인접

9월 초 주택전시관을 오픈하는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 5월 대전 유성구에 개점하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물세권 프리미엄 때문이다. 10년 간 신축 아파트 소식이 전무했던 지역이라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84m² 단일 면적으로 총 816세대로 구성했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였다. 또 단지 내 고품격 커뮤니티 휘트니스 센터, G X룸,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 이집을 조성해 생활 편리함을 높일 계획이다.

탁 트인 명품 조망과 오봉산, 불마산에 둘러싸인 숲세권 위치로 도심 속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대덕테크노밸리와 대전 제 3·4 일반산단 등이 가깝게 위치한 것도 매력포인트다.



물세권 프리미엄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조감도.

사진제공 | 대광로제비앙

교통 환경 또한 뛰어난 금남구죽로, 갑천로, 구죽세종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북대전IC 등 대전 시내를 물론 세종 및 인근 타 도시와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앞에는 바로 구죽초가 위치해있어 초등학교를 1분 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송강중, 두리중, 대덕고, 전민고, 중일고, 한밭대, 배재대, 구죽

도서관 등의 명문 학세권 입지 등 교육 환경도 좋다.

대규모 개발 호재 비전도 빼놓을 수 없다. 단지 북서쪽 5분 거리에 344만m² 규모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조성 중으로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입주하면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정정욱 기자